

‘무주산골영화제’ 공연 · 이벤트 풍성

6월 6~8일 음악공연 · 야외토크 ·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 산골책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초여름의 낭만이 가득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영화제의 메인 행사장인 무주등나루운동장에서 열릴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공개해 기대감을 드높인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부터 무주등나루운동장 메인 무대를 ‘등나루스튜디오’로 확장하며 영화제 첫날 주간부터 야간까지 다채로운 음악공연과 야외토크,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등을 진행해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음악공연에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뮤지션들이 푸른 여름의 낮과 밤을 낭만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6월 6일에는 차세대 청춘밴드로 불리며 서정적인 사운드부터 락킹한 사운드까지 섭렵한 ‘유디밴드’, 오랜 시간 따뜻한 위로로 전하는 노래들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에피톤 프로젝트’가 여름 정취와 어울리는 선곡들로 힐링을 선사한다. 다음 날인 6월 7일에는 풍성한 음식의 광 싱어송라이터 ‘소수빈’이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과 호흡하며, 자타공인 싱어송라이터 ‘적재’가 무대에 올라 영화제의 열기를 더한다. 마지막 날인 6월 8일에는 소중한 오늘을 노래하는 ‘오월요일’이 감성 충만한 시간을 예고한 가운데,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운드 메신저이자 싱어송라이터 ‘이승운’의 풍성하고 폭넓은 밴드 사운드가 3일간 펼쳐진 영화 소풍길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뮤직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공연 라인업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면, 관객들



초여름의 낭만이 가득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영화제의 메인 행사장인 무주등나루운동장에서 열릴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공개해 기대감을 드높인다.

의 즐거움을 두 배로 높여줄 야외토크가 영화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등나루스튜디오와 토크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올해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배우 최현욱이 6월 6일 등나루스튜디오에서 〈넥스트 액터 : 최현욱〉 야외토크를, 6월 7일 토크스튜디오에서는 〈디렉터즈 포커스〉에 선정된 임태화 감독이, 6월 8일은 SMCC 서울 모닝 커피 클럽 박재현 호스트와 함께 송선만 대표, 데이비드 리 셰프

(군동/유튜브 고기강래), 고정하 대표(슈리베다/한국 아우르베다 협회장)가 자리해 관객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다양한 소견을 나눈다.

한편, 온라인 티켓 예매 오픈 9분 만에 무주등나루운동장 6일, 7일 2일차 티켓을 연이어 매진시키며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수제전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해금과 장구로 엮는 화합의 선율’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 전통국악 장애인 평생학습 개강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수제전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복지관은 수제전 보존회와 손잡고 지난 12일부터 ‘수제전 입문과정’을 정식 개강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과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전통음악의 정수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해금과 장구를 중심으로 한 실기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수제전의 아름다운 가락을 직접 연주하며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빛가락 정음, 수제전’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돋보인다.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수제전보존회 연습실에서 총 20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복지관은 이번 ‘수제전 입문과정’을 통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학습 소통 한마당과 연계해 ‘문화로 하나 되는 도시, 정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육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문화재단, 시민기자단 ‘문화파발단’ 3기 출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문화파발단’ 출범식을 열고, 시민의 시선에서 다양한 예술문화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화파발단’은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통합에 따라 기존 ‘전통아씨’의 새 이름으로, 올해로 3기를 맞은 시민기자단이다.

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파워블로거, 대학원생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지난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약 7개월간 전주문화재단의 사업, 행사, 축제 현장을 누비며 취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글로벌 문화주간 성황리 개최

전북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북 글로벌 문화주간’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국제문화 체험과 글로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행사는 △외국인 방송인 토크콘서트 △글로벌 강연 △글로벌 체험부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돼 참여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토크콘서트는 한국 방송에서 활약 중인 인기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출신, 40)와 락키(인도 출신, 45)가 전북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강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청년 마이스서포터즈’ 1기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6일 오후 3시 5층 대회의실에서 ‘2025 전북 청년 마이스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전북 지역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무형 홍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영사, 임명장 수여, MICE 특강, 활동소개,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재길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장은 MICE 산업의 기본 개념과 전북 마이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소개하며, 서포터즈의 이해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25 전북 청년 마이스서포터즈’ 1기는 앞으로 약 8개월간 전북 마이스 산업 홍보, SNS 콘텐츠제작, 현장견학 등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원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